

때 이른 폭염...전력수급 비상

지난달 전력 수요 7만여 MW
6월 전력통계 최고치 기록
광주 폭염특보·빠른 열대야
한전 “안정 다각도로 노력”

때 이른 폭염에 지난달 전력 수요가 6월 기준 17년 만에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월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 전력은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총 7만1,805MW로, 전력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5년 이후 6월 기준 최고치를 달성했다. 최대 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수요를 뜻하는 것으로, 6월에 월평균 최대 전력이 7만MW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23일 전

력 공급예비율 또한 한여름 수준인 9.5%까지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급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 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로, 공급예비율이 10%를 넘겨야 발전기 고장 등 비상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오후 5시 기준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른 지난 4일의 경우 하루 최대 전력 수요량 또한 8만 9,825MW를 기록하며 올 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장마철의 높은 습도와 이른 무더위로 인한 냉방 가동 탓으로 보여진다. 올 여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광주·전남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는 5일 오후 3시 기준 낮 최고 기온으로 33도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밤까지 기온이 25도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도 관측됐다. 이와 같은 열대야는 작년보

다 16일 빠르게 찾아온 것으로, 1939년 광주지방기상청의 관측 이래 4번째로 가장 빨리 나타나는 열대야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여름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8월 둘째주. 이 시기 최대 전력 수요는 91.7~95.7GW에 달하는 등 지난해 최대 전력수요인 91.1GW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량에 비해 전력 수급 여건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및 각 발전소 정비 등으로 수급량이 전년 100.7GW 대비 0.2GW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한편 관계자는 “한전은 전력수급비상 훈련 시행 및 산업체 휴가 일정 조정 및 지난 4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에너지 캐시백’ 사업 등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난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른 무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많아진 만큼 더욱 더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농어촌공사, 기록관리협의체 출범

투명행정·기록문화발전 모색

한국농어촌공사는 5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미나실에서 ‘기록관리협의체’를 출범했다.

‘기록관리 협의체’는 광주·전남 소재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록물 관

리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중요기록물에 대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는 등 기록문화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협의체를 통해 투명한 기록물 프로세스 및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 간 상호보완을 위한 포럼을 실시해 지역 기록관

리 문화 확산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DN, 한전KPS, 전남개발공사 등 총 14곳이다. /오지현 기자



지난 4일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열린 ‘발전 빅데이터 플레어스 개소식’에서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정승일 한전 사장(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발전 빅데이터 플레어스’ 구축

16개 발전소 운영데이터 저장
설비제작·정비회사 등에 제공
혁신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

한국전력이 지난 4일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발전 빅데이터 플레어스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과 한전 정승일 사장, 한국남동발전 김희천 사장, 한국남부발전 김호빈 사장, 한국서부발전 엄경일 기획본부장, 한국남부발전 김우근 기술본부장,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사장, 한전KPS 김흥연 사장과 GS EPS 이강범 부사장, SK E&S 나래에너지서비스 류성선 대표이사 등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전 빅데이터 플레어스’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연료 연소정보, 설비 고장 정보 등 약 10만 종

에 달하는 방대한 발전소 운영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른바 ‘데이터 호수’다. 이는 한전이 전력분야 디지털화를 통한 설비 운영 효율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 견인을 위해 발전자회사와 공동 구축하고 있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구현에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저장된 데이터의 가공·분석 기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성됐다.

발전소의 데이터는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가 보유한 석탄화력 10기와 가스 복합화력 6기 등 설비 운영특성이 유사한 16개 발전소로부터 취합, 저장한다.

그동안 개별 발전회사별로 분산 관리했던 발전소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으로써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수집된 빅데이터는 민간에도 개방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발전 빅데이터 플레어스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경

우 발전소 설비 운영 업무 효율화는 물론 국가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전은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혁신기업, 설비 제작회사와 정비회사 등에 풍부한 발전데이터와 분석환경을 제공,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승일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발전 빅데이터 플레어스에 축적되는 데이터 규모는 연간 210TB로, 이는 2000년 무렵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정보량의 21배”라면서 “이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미래 전력산업을 이끌어갈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지원, 풍요로운 전력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쉬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최근 진행된 한전KDN ‘2022 도서벽지로 찾아가는 AI·SW 코딩캠프’. /한전KDN 제공

한전KDN, 찾아가는 ‘AI·SW코딩캠프’

여수 화양·안일초등생 대상
특강·로봇코딩 체험 등 진행

한전KDN은 최근 여수에 위치한 화양초와 안일초를 찾아 ‘도서벽지로 찾아가는 AI·SW코딩캠프’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KDN이 2018년부터 전남도교육청, 조선대학교와 함께 산·학·관 협력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캠프는 ‘AI·SW 교육 선순환 학점과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에너지ICT 전문기업이 보

유한 집중 특성을 살려 지역 인재 양성과 선순환적 사회 가치 문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초등학생들이 AI·SW에 흥미를 느끼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 이번 캠프에는 전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 한전KDN 인사노무처장과 조선대 SW중심대학사업단 교수진이 함께했다. 이날 캠프는 ‘SW, 에너지 AI와 함께 살아가기’를 주제로 한 특강과 조선대학교 학생의 일환으로 에너지ICT 전문기업이 보

SW강사들의 SW로봇코딩 활동 체험이 진행됐다. 한편 한전KDN은 지난 1월 ‘SW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대학생 총 33명이 참여하는 ‘AI·SW코딩 교육기부활동’을 통해 전남·전북 초·중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배양을 위해 스크래치, 파이선, AI, 로봇활용 코딩교육 등의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현재 올해 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전남도내 5개 중학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ICT전문 기업으로서 어린 학생들을 위한 AI·SW 코딩교육 기부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한전KDN-나주경찰서, 업무협약

사회 안전망 구축 협력·지원

한전KDN(사장 김장현) 감사실이 지난 4일 나주경찰서와 ‘범죄예방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성학 한전KDN 상임 감사와 김선우 나주경찰서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소개와 인사말, 치안설명회, 협약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발전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활동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등으로, 한전KDN과 나주경찰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희롱, 음주운전 등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사회적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공동 시행할 계획이다.

김선우 나주경찰서장은 “한전KDN과 협력을 통해 나주관내의 안전과 범죄예방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한전KDN 상임감사 또한 “나주경찰서의 현장 경험과 한전KDN의 기술 결합을 통한 효율적 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안전과 ICT의 우수 교류사례로 타 기관에 귀감이 되어 양 기관 모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